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평협소식 2008 제17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777 2013, 757 7851 FAX 02 778 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8. 11. 6 발행인 : 한홍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평협 제3차 상임위원회 대구에서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

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9월 6일부터 1박 2일 동안 대구대교구 꾸르실료회관에서 상임 위원회를 갖고, 각 교구 평협의 소식을 함께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 대구 교구청 내 성모당에서 상임위원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싣는 순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평협 회원 단체〉

-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 ◎ 동정
- ◎ 제41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대구대교구 총대리인 조환길 주교는 개막미사 후 특강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반성하고, “단지 신자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1년에 대구대교구가 교구설정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신앙선조들의 삶이 바탕이 되어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이라며,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우리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순교자들의 후손인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대교구 기획실장 전광진 신부는 ‘평신도교령’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것이 확립됐으며, 이것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고유의 사도직으로 평신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회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평협 상임위원회는 둘째 날 한티성지를 순례한 후 마쳤다. 다음 제4차 상임위원회는



▲ 마르티노 추기경과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염수정 주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참석자들

한국평협 마르티노 추기경과 만남 가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11월 1일 저녁 서울 은행회관 내 뱅커스클럽에서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와 이주사목평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레나토 라파엘레 마르티노 추기경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간담회를 겸한 만찬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르티노 추기경과 교황대사 파딜랴 대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 등이 참석하여 한국평협의 임원들과 함께 주로 정의평화와 사회교리, 이주사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르티노 추기경은 전날 주교회의 정의평화



▲ ‘간추린 사회교리’에 대해 설명하는 마르티노 추기경



▲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참석자들과 한홍순 회장

서울대교구에서 열리게 된다.

위원회와 가진 ‘간추린 사회교리’ 간담회에서 강연한 내용 중 ‘평신도와 사회교리’ 부분을 강연한 후 참가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주태국 교황대사 재직 당시 한국교민의 성탄미사를 봉헌해주며 맺어진 한국인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공개했다. 특히 16년간 유엔대사로 근무하면서 한국교민들에게 베풀던 세례와 견진성사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인은 멋진 사람들이라고 칭찬했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이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 됐고, 해마다 2억명이 이주하고 있다”며 이주사목에 한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되신 어머니가 직접 그린 성화로 만든 사제수품 50주년 기념 상본을 나눠주시며, “이 상본을 볼 때마다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라며 한국교회 평신도와의 일치를 다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초청을 받아 10월 30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한 마르티노 추기경은 국무총리 예방과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갖고 순교 유적지를 순례한 후 11월 2일 출국했다.

마르티노 추기경은 2002년부터 교황청 평화평의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2006년부터 교황청 이주사목 평의회 의장도 겸하고 있다. 1932년 이탈리아 살레르노 출생, 1957년 사제수품, 1980년 대주교 서품, 2003년 추기경으로서 임되었다.

다음은 한홍순 회장의 인사말 전문과 마르티노 추기경의 ‘평신도와 사회교리’ 강연 내용의 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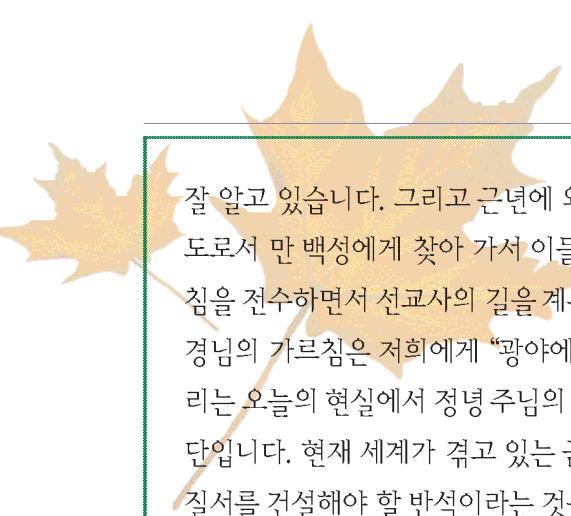
<한홍순 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추기경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대표하여 추기경님의 한국 방문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추기경님께서 한국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한국 신자들의 신앙을 이끌어 주고 또 키워 주고 계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추기경님께서 16년 동안 유엔 주재 교황청 상주 대표로 계시면서 해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집전해 주신 것은 한국민에 대한 추기경님의 그러한 사랑을 잘 보여 주는 징표입니다. 추기경님께서는 로마로 돌아오신 다음에도 이 성사를 집전하기 위해 매년 뉴욕을 다녀 오시니 추기경님의 성사 집전이 추기경님께나 그곳 신자들에게나 이젠 이미 하나의 연례 행사가 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거의 반 세기를 사목적 외교의 예술을 통해 현대 세계의 새로운 아래오파고에서 만백성을 향한 열정적 선교사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와서는 거의 십 년 동안 추기경님께서 정의와 평화의 사도로서 만 백성에게 찾아 가서 이들에게 간추린 사회교리서를 가지고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전수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계속 걷고 계시는 것을 존경의 눈으로 뵙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의 가르침은 저희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마태 3, 3)로 울려 옵니다. 사회 교리는 오늘의 현실에서 정녕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금융 위기는 이 교리야 말로 그 위에 집을, 곧 세계 경제 질서를 건설해야 할 반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님, 간추린 사회교리서를 발간하시고 이 교리서를 세계 방방곡곡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저는 최근 막을 내린 주교 시노드에서 추기경님께서 온 세상에 교회의 가장 잘 지켜진 비밀(사회교리)을 드러내게 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신 것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 포도원에 추기경님처럼 열성적이고 유능한 일꾼을 저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처럼 잊을 수 없는 시간을 혀락해 주신데 대해 추기경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추기경님을 모시게 된 것을 커다란 특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느님과 함께 걷도록” (미카 6, 8 참조) 가르침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희 모두 만 백성을 향한 추기경님의 선교 여정에 기도로 함께할 것을 약속 드리며 부디 “만수무강” 하시기를, 그리고 한국에서 곧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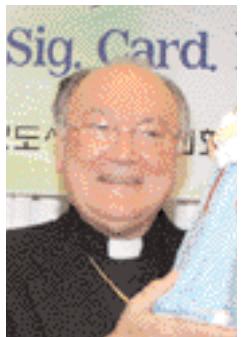
2008년 11월 1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한홍순 토마스

<마르티노 추기경 강연 내용>

평신도와 사회 교리

평신도는 개인이든 단체로든 「간추린 사회 교리」의 가장 좋은 동반자입니다. 이 문서가 평신도들에게 양성을 위한 소중한 도구로 또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으로 제시된다는 의미입니다. 평신도는 자신이 받은 세계 덕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고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 지속되는,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 안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그 신비와 친교와 사명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별한 성격, 그들의 세속적 차원에 따라 그리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세속적으로 사회생활이 이



루어지는 곳에서 직접 살아갑니다. 결정과 선택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가 형성되는 경제, 정치, 노동, 사회 커뮤니케이션, 법, 제도 조직 분야에 몸담고 살아갑니다. 평신도가 다른 교회 주체들보다 세상에 더 깊이 몸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직접적으로 세속 실재를 다루면서, 정치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관계를 수립하고, 활동을 통해 세상의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며, 세상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측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그들의 역량과 전문적 특성을 통하여 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일해야 하는 그들의 임무를 통하여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사회 교리를 어느 모로든 이행하고 사회 교리가 현실에 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합니다. 사회 교리는 단순히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교리는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창의적으로 적용되고 능동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평신도는 이 분야에서 그들에게만 속하는 역할은 아니어도 매우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 교리가 복음 진리와 인간 문제들의 만남이므로, 평신도는 개인이든 단체로든 사회 교리에 나타난 활동 지침들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질적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평신도는 위험을 감내하고 새로운 경험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인간의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평신도는 교회의 사회 교리의 부차적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중심입니다. 사회 교리에는 심오한 “실천적” 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는 한편으로는 사회 교리에 나타난 성찰 원리와 판단 기준과 행동 지침들 사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동하고 결정하는 구체적이고 독특한 상황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중재의 역할에 용기 부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재나 효과적인 타협을 이루는 능력만도 아닙니다. 평신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과 누룩이 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회관계에서 참으로 인간다운 것들을 더 분명히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간추린 사회 교리」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여러분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중요 직무를 맡은 인사들의 성숙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문서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언을 하고 생각과 행동으로 현대 사회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분야에도 언제나 증인과 순교자와 성인들이 필요합니다.

사회 교리에 관한 이 성찰을 마무리하며, 사랑의 문화를 건설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

다. 평신도 여러분은 사제와 남녀 수도자와 함께 사랑의 문화를 성취하는 데에 소중한 기여를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추린 사회 교리」58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합니다. “더욱 인간답고 더욱 인간에게 걸맞은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생활 –정치, 경제, 문화–에서 사랑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랑이 지속적으로 모든 활동의 최고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정의가 객관적인 선익을 공평하게 상호 분배하는 데 대한 인간들 사이의 ‘중재’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비)라고 일컫는 온화한 사랑을 비롯한 사랑은, 또 오직 사랑만이 인간 자신에게 인간을 회복시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정의의 법칙으로만 지배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하느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의 응답으로 기다리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인간들 사이에 맺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고귀한 형태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 활력을 주고, 국제 질서에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문명’이 다스릴 때에만 인류는 참되고 지속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의 만남에서

2008년 11월 1일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의장 레나토 라파엘레 마르티노 추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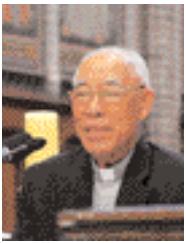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순교자성월을 맞아 ‘순교자성월 미사와 특강’ 가져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9월 순교자성월을 맞아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최창화 목사)와 공동으로 순교자성월 미사와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미사와 특강은

내년 103위 순교성인 시성 25주년을 기념하는 일련의 행사의 시작으로 9월 4일 최창무 대주교, 11일 박정일 주교, 18일 유흥식 주교가 강의했다.

첫 번째로 최창무 대주교(광주대교구장)는 ‘치명하는 삶, 백색순교자의 삶’을 주제로 “‘위주치명’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는 순교자들의 삶을 잘 표현한 말로 그들 삶의 의미요 목표가 바로 주님이었다”며 “우리 순교자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거짓이 참이 되는 것을



막고자 피로
써 진 리를
지켜내고 의
로움을 완성
한 우리 신



앙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도 순교를 완성하는 것이 우
리가 살아야 할 삶”이며 “일
상의 삶에서 부활로 연결되

는 백색순교를 해야 한다”고 강의했다.

11일 두 번째로 강의한 박정일 주교(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는 한국교회
가 시복·시성되지 못한 순교자와 증거자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시복·시성절차
에 대해 소개하고, “순교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순교자들과 같은 믿음과 그들이 지녔던 삼덕
(신덕, 애덕, 망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
다.

마지막 순서로 18일에 강의한 유흥식 주교
(대전교구장)는 “‘순교자들의 피를 밟거름으
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포도나무가 더욱
풍성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토마스 성인의 말
씀대로 그 풍성한 결실이 바로 지금의 한국교

회 모습”이라며 “우리의 신앙선조들은 우리교
회의 자랑”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느님 중심이 아
닌, 자본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
서 많은 병폐를 앓고 있다”고 염려하고, “우리
가 살아야 하는 순교, 증거의 삶이란 이 시대
에 그리스도의 삶을 절대가치로 삼아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시각을 갖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서울평협은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편집하여
서울평협 홈페이지(clas.or.kr) 동영상자료실
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6차 선교포럼 개최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제로

서울평협 선교위원회(위원장 김길성)는 지난 10월 18일 토요일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제6차 선교포럼을 마련했다. 본당 선교분과위원장을 포함한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민병덕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신부가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주제로 강의했다.

주제 강의 후 분임토의를 통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평협은 올해 마지막 선교포럼을 12월 13일 실시할 예정이다.

제5회 사랑,생명,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과 전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사진가회가 주관하는 제5회 사랑·생명·가정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0월 30일 목요일 충무로 3가 싸이드림 포토갤러리에서 열렸다. 대상에는 윤석황씨의 ‘사랑



▲ 명동성당을 가득 메운 신자들



▲ 대상 수상작 윤석황 작품 '사랑과 기쁨'



▲ 시상식 후 수상자들과 기념촬영

과 기쁨'이 선정되었다.

심사를 맡은 홍순태 신구대 사진학과 교수는 작품 선정 이유에 대해 대상인 윤석황의 '사랑과 기쁨'은 붉은색 복장의 주교님과 해후하는 휠체어에 탄 장애인과의 기쁜 만남의 순간을 담은 사진으로, 결정적 순간의 포착이 일품이고 시선이 빛나가지 않도록 배경이 검게 정리되어 있으며 몸을 굽힌 주교님의 사랑어린 표정과 장애인의 반가운 손놀림의 액션은 간결한 인간의 갈구를 연상하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수상인 김애숙의 '사랑의 천사'는 장애인과 한 간호사의 친절함을 담은 한 장면으로 사랑의 손길과 감정표현이 극치에 이르고 시선과 시선이 맞닿는 감정묘사가 무한한 믿음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며 기술적으로도 배

경을 아웃오브포커스 시켜 주제의 인물이 부각되었으며 화면이 단순 처리되어 주제의 표현이 뚜렷하다고 했다.

두 번째 우수상인 김동일의 '행복탑 쌓기'는 한 가족의 산사방문의 등반이 단순한 소풍으로 끝나지 않고 산길의 흔한 돌들을 모아 가족의 협력을 통해 행복을 기원하는 모습에서 행복한 감정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심사평을 했다.

올해는 약 300여점이 응모되어 그 가운데 대상 1편, 우수상 2편,佳作 3편, 입선 44편을 선정했다. 수상작들은 시상에 앞서 10월 27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토요일까지 전시되었다.

〈서울평협 회원 단체소식〉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제9회 사제초청 골프대회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제9회 사제초청 골프대회가 사제와 회원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춘천의 라데나 CC에서 열린 이번 골프대회는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들 뿐 아니라 대구, 대전, 수원, 춘천, 의정부교구 사제들도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최철수 회장을 비



▲ 초청사제들과 경제인회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롯한 많은 고문, 자문위원들과 부회장들의 협찬으로 더욱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제5회 ‘나눔은 희망입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사회사목분과가 중심이 되어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쌀나눔 행사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였다. 310여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시작으로 올해는 1,500여 가정을 후원하는 큰 사업이 되었다.

경제인회와 교구 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이 사업은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부모를 잃고 고통 속에 가정을 꾸려 나가는 소년소녀가장, 극심한 가난 속에 삶의 의욕을 잃고 있는 극빈자 가정과 일부 어려운 시설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쌀과 김치를 나누어주는 행사이다.

금년에도 서울시내의 대상 가정(의정부 250 가구 포함)에 쌀과 김치를 전달하게 되는데, 본당 별로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한 후 지원한 가정 중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20여 가정을 선정하여 후속지원을 하게 된다. 후속지원은 장학금 지원, 단기시설과의 연계, 평화방송과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후원금 모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된 가정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비록 쌀 20kg과 김치 10kg였지만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다.

김장담그기 행사는 11월 16일(일) 명동 사목센터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2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20여 톤의 김장을 담글 계획이며, 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장인 김운희 주교와 회장 김용태 신부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 순교자 현양대회 개최

순교자 성월을 맞아 인천교구민들의 순교 열정을 북돋우고자 매해 마련하고 있는 인천교구 순교자 현양대회가 지난 9월23일 화요일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중우, 담당 안규태 신부) 주관으로 갑곶순교 성지에서 열렸다.

오전 9시 30분 용진진에서 갑곶 순교성지까지 도보 순례를 시작하여 갑곶성지에서 고해성사 및 순교자 현양 미사를 봉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교구장 최기산 주교는 강론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기쁘게 생활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 시대는 우리에게 피흘려 순교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순교자의 신심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삶 속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순교자현양대회 중 도보성지를 하는 신자들

제148차 상임위원회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장춘길, 담당 이영복 목사)는 지난 9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교구청 회의실에서 부산교구 제148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를 포함하여 다양하고 폭 넓은 안건토의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 10월 울산지역 평협 도보순례 계획, 11월 경제인회와 함께하는 공소 순례, 선교상 시상, 사랑봉사상 시상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순교자들의 삶을 따라서는 평협 임원들이 되어주기를 권고하고, 파견강복으로 회의를 마쳤다.



▲ 상임위원회의 장면

순교자성월 장대골 참배 및 미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 순교자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기념하는 장대골 참배 및 미사가 지난 9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영 장대골에서 있었다. 이 날 미사에는 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한건 신부) 소속 사제들을 비롯하여 평신도 25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한건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순교자들은 성직자 없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라며, “현재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순교자의 삶과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원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부산교구 순교자 양재현 마르티노, 이정식 요한, 김범우 토마스의 모든 문



▲ 순교자 시복 시성을 위한 도보순례단 발대

현과 자료가 주교회의의 시복시성위원회에 통과되었으며, 현장 답사도 마친 상태”라며, “지금은 교황청으로 올리기 위해 시복시성 근거 자료를 라틴어와 영어로 번역하여 올릴 예정이다”고 말하고, “시복 시성은 하느님께서 선택하는 일인 만큼 신자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며 신자들이 시복시성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부산평협은 교회사연구소와 함께 8월 30일(토) 수영 장대골을 시작으로 오륜대 순교성지까지 도보성지순례를 했다. 이 도보순례는 부산교구 순교자 양재현 마르티노, 이정식 요한, 김범우 토마스의 시복시성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계속 이어진다.

〈부산평협 회원 단체소식〉

선교마라톤회 현장미사 봉헌

부산가톨릭 선교마라톤회는 지난 10월 5일 해운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부산바다하프마라톤대회에 80여명이 참가하여 현장미사를 봉헌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담당사제인 오종섭 토마스 신부와 강영구 신부를 비롯한 신학생 5명도 함께 전원 완주를 하였다.



▲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의 가두선교 후 기념촬영

이날의 성지순례에 앞서 안철민 아브라함 사목국 차장 신부는 “교구설정 50주년을 맞아 우리 천주교 신앙이 짹트게 된 이곳 배티성지에서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위한 성지순례를 하게 됨은 너무나 의미가 깊다”며 “순례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당시 박해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과 그 분들의 순교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더욱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열정을 바치자”는 당부를 했다.

정업택 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사무국장의 일정 및 순례 안내에 따라 8개조로 나뉘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야외제대를 지나 6인 묘, 14인묘,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께서 박해기 활동하셨던 조선교구 옛 신학교와 성당 겸 사제관에서 신자들은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묵상하였다.

이어 성지 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개인기도 시간을 가진 뒤 야외 제대에서 장인남 대주교(우간다 교황대사)와 장인산 총대리 신부, 이승용 성지담임신부 집전으로 파견미사를 봉헌하였다.

배티성지 이승용 신부는 강론을 통해 “이곳 배티성지는 기해박해(1839년)와 병오박해(1846년)에 이어 병인박해(1866년)를 겪는 동안 배티를 중심으로, 삼박골, 은골, 정삼이골, 용진골, 절골, 동골, 지장골, 통점, 원동, 새울, 굴터, 방죽골 등 인근 15곳의 천주교 신자촌이 형성되었으며,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신학교를 만들고 천주가사와 성교요리문답 천주성교공과를 엮어 펴낸 역사의 현장이며 순교자들의 본향이자 영원한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10회 평신도 도보 성지순례 실시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업택, 담당 최광조 신부)는 9월 27일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 노고산 아래 위치한 배티성지에서 교구내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도보성지 순례를 실시하였다.

10번째 개최되는 이날 성지순례는 교구설정 50주년을 감사하며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염원하는 교구민들의 마음을 담아 최양업 신부가 사목을 펼치던 배티성지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350여명의 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안식처였다”는 양업연구회 연구 결과에 대하여 밀하고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하여 교구민뿐만이 아니라 한국 천주교 신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인남 대주교는 청주교구 50주년을 맞아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교구청 신청사를 봉헌하게 되는 교구민에게 더욱 축하하며 많은



▲ 아름다운 성가로 주님을 찬미하는 사창동 남성성가대

등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날 남성4부 합창의 중후한 음색은 참가한 모든 성가단원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장인산 총대리 신부는 파견미사에서 성가대의 노력으로 하느님께 거룩한 찬미의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며 찬미예수님의 날 행사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축하를 해주셨다.

이어서 최광조 사목국장 신부는 앞으로 찬미예수님의 날이 축제의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변화를 바란다며 격려를 했다.



▲ 파견미사를 마친 참가자들과 장인남 대주교와 기념촬영

기도를 부탁하였다.

제22회 찬미예수님의 날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10월 25일 흥덕구청 내에 있는 청주시민회관에서 교구내 성직자와 수도자 및 평신도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찬미예수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교구 내 본당의 성가대와 교구단체 및 봉사단 등 모두 19개 성가단이 출연하여 합창과 민요, 기타협주곡, 오보에 독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연주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했다.

특히 사창동성당의 남성 합창단은 20명의 단원으로 조직되어 지역사회에서 발표회를 갖는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바오로문화제 개최

바오로사도 탄생 2000주년을 맞아 ‘바오로의 해’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마산교구 바오로문화제’ 공연이 바오로 사도의 뜨거운 선교 열정을 본받는 감동의 무대로 성황리에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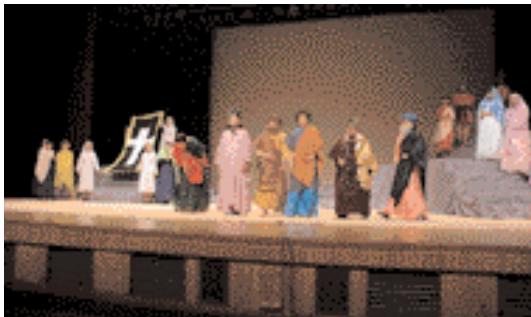
북주기도성월이며 문화예술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지난 18일(토) 마산MBC홀에서 오전과 오후에 걸친 2회의 공연을 통하여 2,000여

명의 신자들이 영적기쁨과 벅찬 감동을 체험하고 사도바오로의 신앙과 삶을 묵상하며 전대사의 은총을 받았다.

교구 사목국 성경부와 마산교구 평협에서 공동주관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준비한 바오로문화제는 준비부터 공연까지는 참으로 힘든 여정이었으나 준비의 여정이 곧 바오로 사도의 전도여행이라는 사명감으로 준비하여 공연을 관람한 신자들로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음으로써 수고와 땀과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었다.

교구장 안명옥 주교는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느님의 선물인 바오로 사도의 불꽃같은 삶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죽기를 다짐하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말로 문화제의 막을 열었다.

공연은 풍물 ‘우리 모두 바오로를 닮아보세!’와 퓨전무용 ‘죄 중에 핀 꽃’, 까리따스 수녀회 수녀들의 합창 ‘복음노래’ 그리고 문화제의 핵심인 창원예술극단의 연극 ‘달릴 길을 달렸노라!로 이어졌다. 특히 바오로 사도의



▲ 바오로 문화제 공연 장면

전도여행을 함께 떠난다는 주제 의식으로 연출된 연극은 회심과 부르심에 모두 응답하는 이야기로 전개됐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장님과 제 단체 회장단 간담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담당 김종주 신부)는 10월 24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교구단위 제 단체 회장단과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20개 단체,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단체의 특성과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사도직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한 후 각 단체 별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최창무 대주교는 “오늘 모이신 여러 단체장님들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잔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 단체는 교회를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각각 받은 소명에 따라 공동체감을 갖고 역할에 충실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평협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며 활동하시길 바란다.”며 격려하였다.

평협·여성위원회 합동 임원연수회

교구평협과 여성위원회(위원장 황순자, 담당 김종주 신부)는 11월 1~2일 구례 피아골 피정집에서 임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정 및 연

수회를 가졌다. 피정집의 원장 강길웅 신부는 “우리는 그때그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비록 한 텔레트를 받은 자신이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그 열매는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다.”라며 좋은 말씀을 해 주시어 보람된 시간이 되었다.

〈지구 활동〉

나주순교자기념성당 순례를 겸한 1일 피정

나주순교자기념성당(회장 정종범, 주임 배행기 신부)은 9월 순교자성월을 맞아 ‘나주순교자성당 순례를 겸한 1일피정’을 9월5일, 9월19일, 9월26일 세 차례 가졌다. 전 교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피정은 조영대 신부, 윤빈호 신부, 옥현진 신부의 특강으로 순교성인들의 정신을 더 깊이 아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어 나주순교자기념경당, 현 하롤드 대주



▲ 피정을 마친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 기념관, 까리따스 수녀회 한국 첫 본원을 순례하고 십자가의 길과 파견미사로 일정을 마쳤다.

서남부지구평협 등반대회

광주대교구 서남부지구평협(회장 이종효, 담당 진용민 신부)은 10월 4일, 영암 월출산으로

지구 내 10개 본당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반대회를 다녀왔다. 이날 사제와 수도자가 함께하여 대자연 속에서 화합을 이루는 자리



▲ 경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대표단

가 되었다.

북부지구평협 체육대회

광주대교구 북부지구평협(회장 조재현, 담당 손병현 신부)은 9월28일 15개 본당,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지구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족구, 배구, 피구, 줄넘기, 이어달리기 등 게임으로 승부를 가렸고 끝까지 함께하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광주평협 회원 단체활동〉

제25회 광주가톨릭미술가회전

미술가회(회장 김재형, 담당 이호 신부)는 9월 13~24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상계갤러리



▲ 전시작품을 감상하는 교우들

에서 제25회 광주가톨릭미술가회전을 열었다. 이날 김희중 보좌주교가 참석하여 격려해 주었고, 김재형 회장은 “신앙을 주제로 한 작품 창작을 통해서 하느님이 찬미를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며,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해진다면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제 단체 교구장 사목방문

광주대교구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교구 단위 신심운동단체인 성령쇄신봉사자회와 M.E를 10월21일에, 꾸르실료, 세나뚜스를 10월22일에, 사도직단체인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10월 22일에 사목방문을 하였다. 최 대주교는



▲ 세나뚜스를 방문하여 현황을 듣고 있는 최창무 대주교

이날 각 단체의 특성 및 현황 등을 보고 받은 후 격려말씀을 했다.

성 프란치스코 축일 기념행사

재속프란치스코회(회장 김영임, 담당 조기영 신부)는 10월 3일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을 맞이하여 전례 안에서 성인이 체험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행사를 장성 프란치스코 집 마당에서 가졌다.

한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한국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

산청 성심원 가정사 준공식 참석



▲ 가정사 준공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008년 10월 8일에 4년여 공사기간과 약 44 억여 원이 넘는 예산을 들인 산청 성심원 가정사(노인전문주택) 4개동의 준공식이 있었다.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 채규태 한국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장, 이제근 산청군수,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김민환 산청군의회 의장, 이현기 한센복지협회장을 비롯한 여러 내외빈 500 여 명이 참석, 한센병력인들의 인권과 복지향상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냈다.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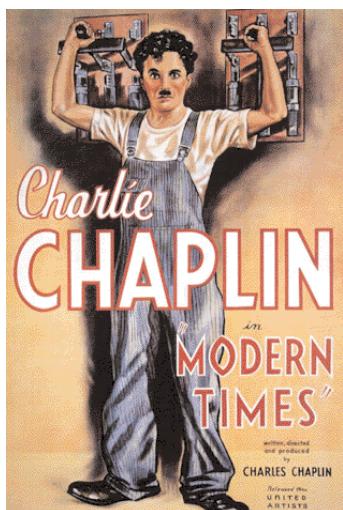
청년과 소년 레지오 단원 ‘전주 치명자의 산’ 성지 순례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담당 민병덕 신부)는 9월 7일과 10월

좋은영화보기

‘좋은영화보기’는 영화탄생 100주년을 맞아 바티칸에서 선정한 위대한 영화 45편을 중심으로 미국 주교회의에서 1965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는 좋은 영화 목록을 데해 작년부터 서울평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복음화 사업입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모던 타임즈’는 지난 11월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모던 타임즈(Modern Times)



감독 : 찰리 채플린(1936년)

주연 : 찰리 채플린 파울레트 고다르

우리 인간은 왜 일(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답 할 것이다. 그럼 인간의 노동은 단지 생계유지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 할 수 있을까?

찰리 채플린은 자신의 영화 모던 타임즈를 통해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 기여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인간의 권리임을 영화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생산 산업 현장에서 효율과 능률을 위해 인간 노동이 생산 수단의 도구화 되는 행위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상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사회교리)에서는 인간 노동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노동은 하느님의 명령이며 자신의 인성을 보존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요성에 응답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가르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물질적 생산수단, 생산수단에 사용되는 금융 자원의 자본과 생산에 참여하는 인적 자원, 인간의 창의력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노동과의 상관관계에서 상호 보완 관계가 있지만 인간의 노동은 생산 활동의 주인이며 자본은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은 자본보다 본질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 성지순례 중인 청년 단원들

3일 산하 청년 레지오 단원들에 대한 야외 행사를 성지순례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 지역별로 서서울은 9월7일, 동서울은 10월3일에 관할 레지아의 주최로 각각 실시했다.

서서울 청년 레지오 단원 203명은 9월 7일 아침 7시에 신도림역에서 모여 버스 6대로 출발했으며, 가는 도중에 시작기도를 시작으로 성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북상을 한 뒤 11시30분 전주 치명자의 산 밑의 마로니에 광장에 도착했다.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성지 꼭대기에 있는 성당에 도착해 현지 신부님의 은총 어린 축복과 격려로 기쁨이 충만한 미사를 드렸다.

미사 후에 그곳 성모상처럼 신비스런 바위와 풍경을 감상하고, 성지에서 내려와 이동해, 전동 성당 부근의 식당에서 비빔밥으로 식사를 한 후, 성인들의 생가가 있는 초남이 생가 터에 도착했다. 그 일대의 3백30만평의 대지주였던 아오스팅 성인 부부와 그 아들과 며느리 루갈다가 살던 집에서 이들에 관한 강의를 전주 교구 안내자의 심도 있는 강의를 들었다. 동서울 청년 87명도 10월3일 기흥에서 만나 2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같은 방법으로 성지 순례를 실시했다.

한편, 동작 꼬마씨움은 서서울 소년 레지오 단원 350명을 인솔하여 9대의 버스로 10월12일 감곡 성당을 찾아 야외 행사를 실시했다.

2008년도 초임 꾸리아 단장 교육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는 9월20일과 9월21일 1박2일에 걸쳐 산하 초임 꾸리아 단장과 교육 미 이수 단장을 대상으로 성체 대회 기념관에서 꾸리아 단장 교육을 실시했다.

꾸리아 단장 114명이 신청하여 103명이 수료한 이번 교육에서 첫날에는 팽종섭 그레고리오 세나뚜스 단장의 레지오 마리오 문제점에



▲ 강의에 열중하는 초임 꾸리아 단장들

대한 3시간의 교육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다음날은 조천제 교수의 리더십 강의와 서울 세나뚜스 한희운 아네스 회계의 레지오 마리애 행사 및 기획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의 결과를 나누는 것으로 교육을 마쳤다. 파견 미사는 담당사제인 민병덕 신부의 집전으로 봉헌됐다.

세나뚜스 승격 30주년 기념 미사

정진석 추기경은 10월 6일 11시 명동 대성전

에서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승격 30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는 1978년 12월26일 서울 무염

기념하여 10월 1일, 8일, 15일, 22일 4주에 걸쳐 특강을 가졌다.

첫날은 김영남 다미아노 신부의 ‘사도 바오로의 열정’, 둘째 날은 안병철 신부의 ‘사도 바오로 그는 누구인가?’, 셋째 날은 신교선 신부의 ‘사도 바오로의 선교 여정’, 마지막 날에는 백운철 신부님의 ‘기도에 관한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의 열정적인 강의가 있었다. 매 강의 시간마다 꼬스트 훌은 가득한 청중이 숨을 죽인 열성으로 화답하였으며, 총 1,500여 단원들이 교육을 받았다.

2008년도 레지오 2단계 1기 교육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는 10월 17일 오후 4시에서 19일 오후 4시까지 2박 3일 동안 성체대회 기념관에서 2단계 1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레지오 마리애 1단계 교육 이수자와 꾸리아 간부 특별 교육을 이수한 단원을 대상으로 65명이 신청하여 63명이 수료했다. 이번 2단계 교육에서는 첫날 가톨릭신학대학의 최기섭 신부님으로부터 ‘초기 신앙 선조들의 유교를 바탕으로 한 천주교의 이해’에 대하여 배웠고, 둘째날은 한정관 신부님으로부터 ‘불교와 천주교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배웠다.

또한, 노길명 교수로부터 ‘우리민족 재래의 신심의 개요와 사상’이라는 무속신앙에 대한 강의를 들은 데 이어 다음날은 ‘여러 교파와 각 종파의 전교 방법, 교리 대한 것’이라는 신흥종교에 대한 강의 등 폭넓은 강의를 들었다.



▲ 레지오마리애 승격 30주년 기념 미사 후 기념촬영

시태 세나뚜스가 광주 세나뚜스로부터의 승격을 기념하여, 산하 1,800여 꾸리아 간부와 지방 레지아 담당사제와 간부들이 함께한 것이다. 1부 미사는 초기경님이 집전하시고, 2부 기념식에서는 전국 평협 총회장과 광주, 대구 세나뚜스 단장의 축사 등이 있었으며, 3부는 별관에서 이날 참석한 150여명의 내빈들과 축하연으로 이어졌다.

10월 로사리오 성월 특강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는 명동 성당 꼬스트 훌에서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사도 바오로 탄생 2000년을



▲ 로사리오 성월 특강이 4주에 걸쳐 잘 마무리되었다.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전국 교구 이사회, 회장단 모임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회장 정해정, 담당 김준석 신부)는 10월 18~19일 청주 초정약수 스파텔에서 전국 교구이사회 회장단과 담당사제가 참석한 모임을 가졌다.

한국이사회, 안동, 전주, 청주교구 담당사제



▲ 전국교구 이사회와 회장단 모임 후 기념촬영

가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한 이들을 돋기 위해서는 혁신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회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며, 한국이사회의 홍보와 전산작업의 실행화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거 빙첸시오 회원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 전국적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느 조직이든지 역사성을 잊어버리면 안되며 역사 안에서 전통을 살려 나가야 한다는 신부님의 말씀도 있었다. 또 제도권 밖의 어려운 이들을 돋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

제35차 행사 전주 여산 숲정이 성지와 천호성지 참배, 천호산 등반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회장 김지영) 산악회는 35차 행사로 9월 27일 전주 여산의 숲정이 성지와 천호 성지를 참배하고 인근의 천호산을 등반했다.

또 10월 25일의 36차 행사 때는 경기도 양평의 양근 성지를 참배한 뒤 주어사 터를 거쳐 앵자봉과 인근 능선에서 5시간 동안 산행을 하고 천진암에서 참배했다.

10월 행사에서 회원들이 답사한 곳은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로서 뜨거운 열정과 희생, 순교의 역사가 서린 곳. 주어사와 천진암은 신앙 선조인 이벽, 이승훈, 정약전, 정약종, 권상학, 김원성, 이총억 등이 강학회를 열었던 곳이며 회원들이 답사한 산길은 그 옛날 신앙선조들이 강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르내렸던 그 길이다.

회원들은 하산 뒤 인근 식당에서 안승철 신부의 집전으로 미사를 올리고 함께 저녁밥을 나누었다. 바오로 수도회 소속 안 신부는 9월



▲ 산악회 회원들이 월례행사로 10월 25일 양근성지를 거쳐 천진암으로 가는 길에 앵자봉에 올랐다.

성지 순례 때부터 참여했다. 안 신부는 “워낙 산을 좋아하는데다 직무가 미디어인지라 학생 시절부터 언론인들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안 신부는 앞으로도 회원들과 성지순례 및 등산을 함께하고 미사를 집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산악회는 이날 새 회장에 최홍운 베드로 회원(가톨릭대학 생명대학원 겸임교수·전 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장)을 선출했다. 또 수석 부회장에는 이진복 프란치스꼬(도서출판 동녘 대표), 부회장에 정현조 바오로(KBS 심의위원회) 형제를, 여성부회장에 흥명의 레지나 자매를 각각 선출했다.

산악회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전국의 성지를 순례하고 성지 인근의 산을 등반하며 지금까지 모두 36차례의 행사를 치렀다. 앞으로 국내 성지순례를 모두 마치면 해외성지 순례에도 나설 계획이다.

미리내 성지순례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회장 김지영)는 10월 11일 경기도 미리내 성지로 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순례에는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내 한국가톨릭 신문출판협의회(UCIP)와 한국가톨릭 커뮤니케이션협의회(SIGNIS) 회원 50여 명이 참여하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소년시절을 보낸 은이 성지를 먼저 참배한 뒤 삼덕고개를 넘어 미리내 성지에 도착, 참배했다. 이 길은 옛날 김대건 신부가 새남터에서 40일간 모래사장에 가매장되었다가 이민식 빈첸시오가 시신을 발굴, 미리내까지 밤을 새워 몰래 운구했던 산길이다.

19차 신앙학교 개강

한국가톨릭 언론인협의회는 19차 신앙학교를 9월 24일 열었다. 이번 학기에 등록한 언론인 신자들은 모두 19명. 이들은 언론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돋기 위해 마련한 강의를 매주 수요일 저녁 서울 명동성당 구내 사목센터 내의 강의실에서 11차례 수강한다.

신앙학교 수료식은 12월 3일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수료미사와 함께 열리며 수강생들은 정진석 추기경으로부터 수료증을 받는다. 가톨릭언론인 송년회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열린다.

한국가톨릭 여성협의회

2008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2008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장 오덕주) 총회가 지난 10월 26~31일까지 서울 예장동 국제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와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 필리핀



▲ 2008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개막미사에서 함께 손을 잡고 성가를 부르고 있다.

이주사목주교위원회 위원장 칸틸라스 주교 등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된 개막미사에는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와 필리핀 등 각국 여성 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염수정 주교는 강론을 통해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따르는 여성이 정치와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평화에 이바지하는 사람의 자세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평화와 정의의 중거자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고, 이어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는 ‘여성의 존엄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평화를 일구는 여성-믿음과 행동 안에 일치하며’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총회에서 아·

태지역 12개국에서 참가한 180여 명의 회원은

1. 아시아 가정에 미치는 이주의 사회적 영향 (필리핀, 칸틸라스 주교) 2. 여성에 대한 폭력 (인도, 에이브렐 스톤/WUCWO 이사) 3. 생명과 평화에 대한 사랑 (한국, 권경수 회장/한가협회장) 등 세 가지 주제 강연을 듣고 심도 있는 나눔을 가진 데 이어 오늘날 가톨릭 여성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결의한 주요 내용은 ▲생명문화 건설을 위한 입법과정 참여와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간 노력 촉구 ▲양성평등을 위한 남녀 의식 고양과 여성의 가난 퇴치 계획 수립에 여성들이 나설 권한 촉구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한 협정과 회담에 여성 참여 촉구 ▲생명보호 및 환경보호, 전쟁 불식을 위한 활동 참여 ▲이주민 가정을 포함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지원 등이다. 10월 30일 서울대교구 조규만 주교 주례의 폐막미사에 이어 진행된 폐회행사에서는 아태 지역의 극빈 여성들

의 자립을 후원하는 사업인 ‘프로젝트 여성 2009(Project Women 2009)’의 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 기금은 서울여성연의 모금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원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피지·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 가톨릭여성 연합회에 각각 전달됐다. 전세계 5개 지역(남미·북미·아태·유럽·아프리카) 66개국의 회원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 가톨릭여성연합회는 오는 2010년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이스라엘에서 세계총회를 열 계획이다. 차기 아·태 총회는 오는 2012년 인도네시아 가톨릭여성연합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동정

유연채 한국평협 홍보위원회 위원장 장인상

한국평협 홍보위원회 유연채 스테파노 위원장이 지난 10월 20일 새벽에 장인상을 당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흑석동성당 납골당에 모셨다. 고인의 안식을 위한 기도를 바란다.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 주교시노드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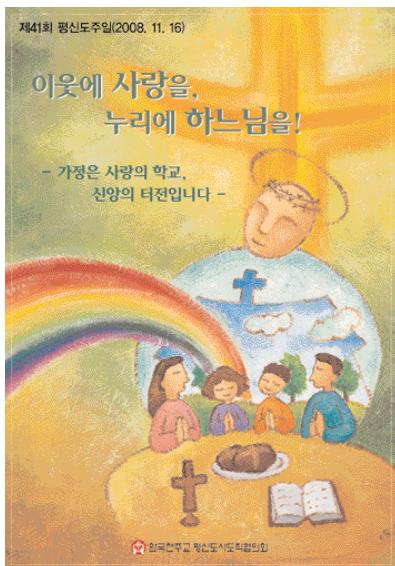
한국평협 한홍순 회장은 지난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로마에서 열리는 주교시노드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참관인으로 임명받아 참석했다.

〈한국평협은 제41회 평신도주일을 맞아 ‘가정은 사랑의 학교, 신앙의 터전입니다.’라는 주제의 강론 자료를 전국 모든 본당에 배포하였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제41회(2008년)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이웃에 사랑을, 누리에 하느님을! – 가정은 사랑의 학교, 신앙의 터전입니다 –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 25,29).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연중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
일을 한 주간 앞두고 마흔한 번째 평신도주일을 지내
고 있습니다.

방금 인용한 오늘 복음의 한 구절, 격언과도 같은 이
말씀은 심판의 엄정함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가없이
후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자 능
력에 따라 다섯 탈렌트와 두 탈렌트, 그리고 한 탈렌
트를 맡겼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섯 탈렌트를 맡
았던 종은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며 내놓았고, 두
탈렌트를 맡은 종은 두 탈렌트를 더 벌어서 내놓았으
나 한 탈렌트를 맡았던 종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가 한 탈렌트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도로 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자 주인은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그를 꾸짖고는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고 다른 종에게 이른 다음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
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받은 소명과 해야 할 사명

오늘 복음에서 종들이 해야 할 봇은 저마다 능력에 따라 맡겨진 ‘탈렌트’를 가지고 결실
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 누구에게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에 맡는 일을 맡기십니다.

세례와 견진성사로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명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 48)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성사 생활을 충실히 하며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생활을 통해 이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수행해야 할 사도직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복음화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토록 노력하여 실제로 사도직을 수행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므로 바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불타올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았습니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제2항).

그리기에 얼마나 성실하게 이 사명을 다해나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뜻이고, 지상여정을 끝냈을 때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서 셈해야 할 과제입니다.

평신도사도직협의회 40주년

많은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웠고, 목숨까지 바쳐 가며 신앙을 지킨 신앙 선조들의 후예답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자신의 사도직을 개인적으로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한 주간 앞둔 연중 제33주일을 ‘평신도주일’로 지내는 것은 바로 우리 교우들이 개인적으로나 단체에 가입해서 주님께 받은 자신의 ‘탈렌트’를 불리기 위해서이며, 이는 곧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그 사도직을 촉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조직을 갖춰 지속적으로 살려나가기 위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지 3년 뒤 1968년에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전국의 각 교구에서도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세워져 평신도 사도직을 촉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교님들을 비롯한 모든 신부님들과 수녀님, 수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교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성 25주년, 새로운 복음화의 열정

내년 2009년 5월 6일은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 회장을 비롯한 103위 한국 순교성인들의 시성 25주년 은경축입니다.

1984년 이날,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비추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한강 건너 새남터와 절두산, 당고개 순교터가 바라보이는 여의도 광장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모시고 ‘103위 순교복자 시성’을 선포하던 이 땅의 하느님 백성들! 그 합성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동안 우리 중에는 103위 성인 성녀들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시성의 참 뜻을 깨달아 복음화에 앞장 서온 분들이 참으로 많고, 이제 그 성과 또한 500만 신자를 넘어서서 인구 대비 20%의 복음화를 목표로 삼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을 다시 한 번 불태웠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 왔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집’을 바위와 같은 하느님의 말씀 위에 짓고 있는지, 아니면 성공이나 경력이나 돈 같은 모래 위에 짓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일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의 세계 금융 위기는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고 마는 허망한 것인지, 사회 질서의 근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2008년 10월 5일 제 12차 세계 주교 시노드 개막미사 강론 참조). 우리의 순교 성인 성녀들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집을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 지은 분들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백색의 순교를 살자!

오늘 우리에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순교할 것을 강요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백색의 순교’입니다. 그것은 곧 고난을 겪게 될 때마다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로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집을 하느님의 말씀 위에 짓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곧 신앙의 터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은 복음화의 훌륭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탈렌트’를 불리는 것이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온 누리에 하느님의 사랑이 퍼져 나가고 마침내 참된 평화가 깃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